

落胎論爭

— 基督教 倫理的인 接近 —

韓 重 植*

目 次

- I. 서 론
- II. 본 론
 - 1. 낙태의 철학
 - 2. 낙태의 의술적 모험들
 - 3. 낙태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 III. 결 론
- BIBLIOGRAPHY

I. 서 론

낙태는 오늘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 문제만큼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¹⁾

세계보건기구(WHO)의 1992년 6월 24일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sex횟수는 1억번 이상이라고 밝혔다. WHO가 인간의 생식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20주년을 기념, 이날 발표한 「생식의 건강-밝은 미래의 열쇠」(Rep-

* 人文大學 教養科 教授

1) R. C. Sproul, Abortion : A Rational Look At Emotional Issue(Colorado Springs : NAV Press, 1990), pp.7, 13, "Too many citizens, it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and may be the most serious ethical dilemma ever faced by the United States. The issue is abortion." ; Karl Barth, Church Dogmatics(Edinburgh : T & T. Clark, 1961), Vol.III. pt. 4, p.419, Abortion is "the great modern sin."

roductive Health, A Key to a Brighter Future)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왕성한 성교로 매일 약 91만명의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있으며 이중 50%는 「명백히 원치 않는 임신」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따라 sex 횟수당 평균 임신율은 약 1%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15만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하지 못한 조건때문에 5백명의 여인이 죽는다고 보고했다.²⁾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법개정안 가운데 「낙태 부분 허용」 조항에 반대해 벌이고 있는 법안폐지 운동의 구호이다. 1992년 7월부터 교단 차원에서 전개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낙태법 폐지 1백만 서명 운동」은 10월 13일자로 1백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³⁾

이번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법개정안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측은 버르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없애서는 안 된다.」는 종교 교리에 입각한 것이다.⁴⁾

법 개정을 추진해 온 법무부도 이같은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종교 교리와 법률 문제는 별개」라며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또 낙태 허용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이면서 종교계가 개정안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간이나 결혼할 수 없는 혈족간의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칠 경우, 「태아가 기형인 때」 등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개정안은 오히려 기존의 「모자보건법」 보다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란 얘기이다.⁵⁾

이 논문은 이처럼 생명우선론(pro-life/pro-fetus) 과 선택우선론(pro-choice/pro-

2) Time(July 6, 1992), p.15 ; 조선일보(1992-6-26). Cf. Rich Wilkerson, Straight Answers to Tough Questions About Sex(Pittsburgh : Whitaker House, 1987), p.168 ; B. E Kwast, Abortion : It's Contribution to Maternal Mortality.Abstract in Midwifery, 8(1), 1992, Mar.pp.8~11.

3) 정권현, 기자 수첩 : 「落胎」와 「票」, 조선일보(1992-10-16).

4) Ibid.

5) Ibid.

woman)⁶⁾ 간의 싸움으로 알려진, 끝없이 논쟁의 핵이 되는 해묵은 issue인 낙태문제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본 론

1. 낙태의 철학

낙태(Abortion ; Abtreibung ; Avortement)란 태아가 모체(母體)외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연적인 분만기 상태에 이르기전에 인위적으로 이의 「생명을 종식시킬 의도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the premature expulsion of the fetus with the intention of bringing about it's death) 혹은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진행절차를 일컫는다.⁷⁾

6) 본래는 pro-life 와 pro-choice 라 불렀으나 선택우선론은 생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생명우선론은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또 이 어휘들은 신중한 구별이 아니라 공격적, 정치적 목적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중립적인 언어인 pro-fetus 와 pro-woman 이란 말을 쓰기에 이르렀다. See James B.Nelson, *Between Two Gardens : Reflections on Sexuality and Religious Experience*(New York : The Pilgrim Press, 1983), p.163 ; Randy Frame, "Language of Life and Death." *Christianity Today*(Jan.11, 1993), p.38 ; 다니엘 켈라한, "낙태 논쟁은 향상될 수 있는가." 황 필호 편저,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서울 : 종로서적, 1990), p.245.

7) Francis J.Beckwith, "Abortion", R.K.Harrison, ed., *Encyclopedia of Biblical & Christian Ethics*(Nashville : Thomas Nelson Publishers, 1992), p.3.Cf.Archibald Sutherland Duncan, Gordon Reginald Dunstan, and Richard Burkewood Welbourne, ed., *Dictionary of Medical Ethics*(London : Darton, Longman & Todd Ltd., 1981), p.1 quoted in 맹 용길, "성경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 *손 안에 책*(3)낙태(서울 : 두란노 서원, 1990), p.5 ; 모자 보건법(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14호), 제2조 4항.

고대 사회 특히 헬라, 로마시대에 있어서 낙태행위는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도 되지 않았다. 낙태죄가 형법상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 사상과 생산수단으로서의 인구확보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그래서 약 200년경 시베루스(Severus) 帝에 이르러서야 낙태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하였다.⁸⁾

임산부는 왜 낙태를 하는가? Thomas A. Mappes가 제시한 아래에 열거하는 목록은 철저하게 포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낙태를 위한 광범하고 가능한 이유들을 시사하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⁹⁾

- (a)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만일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허용하여 출산기에 이르면, 산모 자신이 죽게 될 경우.
- (b) 다른 경우에, 만일 임신상태가 계속 허용된다면 산모의 생명이 아니라 산모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건강이 심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경우.
- (c) 어떤 경우에, 임신이 어찌면, 혹은 분명하게 아주 심각한 기형아를 출산할 경우.
- (d) 임신이 강간 혹은 근친상간의 결과로 연유된 경우.¹⁰⁾
- (e) 산모가 미혼으로서 사생아의 사회적인 오명을 받게 될 경우.

8) 이 영란,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고찰”, 숙대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아세아 여성 연구」 제25집(1986), p.265 quoted in 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76.

9) Thomas A. Mappes, Introduction, Edd., Thomas A. Mappes and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San Francisco: McGraw-Hill Book Company, 1982²), p.1. Cf. Justice Byron R. White, “Dissenting Opinion in ROE v. WADE”, Mappes and Zembaty, *Ibid.*, p.11; R.F.R. Gardner, *Abortion: The Personal Dilemma*(New York: Pyramid Books, 1974).

10) 의학적인 이유로 낙태를 해야 하는 경우 “치료적인 낙태”(therapeutic abortion) 라고 표현한다. 위의 (a)(b)(c)는 통상 치료적 낙태로 간주된다. 그러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결과로 연유된 임신이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이라고 가정되어 정신적인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낙태는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편으로 (d)를 “치료적 낙태”로 분류한다. Mappes. op. cit., p.1, n.1.

(f) 이미 아이를 가졌는데, 또 다른 아이를 갖게 될 때 견딜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g) 모든 이유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산모의 행복에 방해가 되거나, 부모의 행복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미 출생한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행복에 방해가 될 경우.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 가능한 목록은 끝이 없다. 산모가 직업을 원할 수 있다. 부부가 새로 출생할 아이의 침범으로 서로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할 저들이 느끼기 원하는 감정이 침해될 수 있다. 부모는 아이가 이미 성장해서 또 다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경우 등등이 있다.¹¹⁾

이래서 우리나라도 1953년에 제정된 형법(형법 제 269조, 270조)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했던 것을, 1973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며 임신 28주 이내에 낙태를 할 수 있는 합법적 이유를 마련하였다.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다음과 같이 낙태허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a)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b)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c)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d)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e)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¹²⁾

낙태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태아의 인간성(fetal humanity)의

11) 웃지 못할 이유는 한창 종말론이 사회를 어지럽힐 때 어느 여인은 휴거 때 태아의 무게가 과외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낙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In one specific instance, a woman reportedly had an abortion because she thought that the weight of the fetus will be an extra burden when ascending to heaven." The Korea Times(Oct. 28, 1992).

12) (a) 와 (b) 는 우생학적 사유로, (c) 와 (d) 는 윤리적 사유로, (e)는 의학적 사유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 op.cit., p.40, n.2.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즉 태아가 인간인가 인간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태아가 인간이라면 낙태는 살인이므로 허용될 수 없지만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그리 문제 삼을 일이 못된다는 것이다. 태아의 인간성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태아의 발달과정 중에서 태아의 인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어느 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태아는 언제 인간이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입장이 논의 된다.¹³⁾

첫째, 태아는 임신(conception)의 순간부터 인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두가지 논거에서 찾는다. 하나는 유전학적 논거¹⁴⁾이다. 남성 생식 세포(the spermatozoon)가 여성 생식 세포(the ovum)와 결합될 때 임신(conception)이 이루어지며, 결과로 하나의 세포(the single-cell zygote)를 이루는데, 이것은 23쌍의 염색체로 완전한 유전적 코드(the full genetic code)를 지닌다.¹⁵⁾ 임신된 세포는 성장한 사람의 세포에서 발견되는 염색체와 똑같은 구조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데, 태아의 생물학적 특성은 유전적 code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유전적 code를 얻는 순간부터 태아는 독자적 개체이다. 이 유전적 code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태아에게 주어진다.¹⁶⁾ 그러므로 태아의 인간성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정되어

13) 우리는 지면이 허용되지 않아 이 모든 입장을 비판함이 없이 단순히 소개만 하겠다. 태아의 인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M. A. Warren은 우리가 볼 것과는 달리 Consciousness, reasoning, self-motivated activity, the capacity to communicate, the presence of self-concepts을 제시 한다. See Mary Anne Warren, "On the Moral and Legal Status of Abortion", Mappes and Zembaty op. cit., p.19.

14) Baruch Barody, Abortion and the Sanctity of Human Life : A Philosophical View (Cambridge : MIT Press, 1975), p.81 ; Richard Werner, "Abortion : The Moral Status of the Unborn", ed., Manuel Velasquez and Cynthia Rostankowski, Ethics : Theory and Practice(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85), p.252.

15) Mappes, op. cit., p.2 ; Charles E. McLennan and Eugene C. Sandberg, Synopsis of Obstetrics(Saint Louis : C.B.Mosby, 1974⁹⁾). pp.41~45.

16) 서울의대 백상호 교수는 임신 8주 이전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실체를 "배자"(embryo), 8주말 이후부터 보통 "태아"(fetus)라고 일컫는다고 구분하였지만 우리는 통틀어 "태아"라고 쓰겠다. 백상호, 임신 8주 이전엔 "배자", 朝鮮日報를 읽고, 朝鮮日報(93-10-30).

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소위 「미끄럼틀 논거」¹⁷⁾이다. 임신에서부터 출생까지 태아의 발달과정은 미끄럼틀처럼 연속적이다. 이 연속적인 과정에서 어느 특수한 지점도 태아의 인간성을 인정할 시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자와 난자가 접합자로 되는 순간은 새로운 신체로서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이 되는 것은 임신의 순간부터라는 주장이다.¹⁸⁾

둘째, 세포분열(segmentation)¹⁹⁾이 일어나는 시기를 태아의 인간성 인정의 시기로 본다. 정자와 난자가 병합하여 임신이 이루어진 후 7~8일 경에 세포분열이 일어난다. 이 입장은 쌍둥이를 임신한 특수한 경우에서 그 논거를 찾는다. 쌍둥이가 임신된 경우에는 그들이 세포분열을 거쳐서야 비로소 독립된 개체로 분리되므로 이 시기가 바로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기라는 주장이다.

셋째, 태아의 두뇌가 활동(brain activity)²⁰⁾을 시작하는 시기를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점으로 본다. 태아의 의식작용이 시작되는 시기를 임신 후 6주말경 이라고 본다. 이 입장의 논거는, 의사들은 뇌의 파동이 멈추었을 때를 죽음의 순간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뇌가 멈춘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이를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태아의 뇌의 파동 시기인 6주말부터 태아는 인간이

17) Barody, op. cit. Cf. Werner, op. cit., p.256 ; Judith Jarvis Thompson, "A Defense of Abortion.", Velasquez and Rostankowski, op. cit., p.261

18) 이 입장을 취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태의 도덕적인 불허용을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의 논문들을 보라. Jane English, "Abortion and the Concept of a Person", Mappes and Zembaty, op. cit., pp.30~39 ; John T. Noonan, Jr., "An Almost Absolute Value in History", Mappes and Zembaty, Ibid., pp.12~17 ; R. M. Hare, "Abortion and the Golden Rule", Velasquez and Rostankowski, op. cit., pp.274~279 ; 낙태 주변의 문제들을 극적으로 토론하는 Peter Kreeft, Unaborted Socrates(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1983). Cf. Germain Grisez, Abortion : The Myths, The Realities and the Arguments(New York : Corpus Books, 1970), p.360, "...for all practical purposes we must hold that to be willing to kill the embryo is to be willing to kill a person."

19) Barody, Ibid., p.82 ; Mappes, op.cit.

20) Barody, op. cit., p.83 ; Mappes, op.cit.

된다고 본다.

넷째, 태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태아의 운동(quickening)²¹⁾을 임신부가 감지할 수 있는 시기를 태아의 인간성 인정의 시기로 보는 입장이다. 그 논거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들 중의 중요한 하나는 운동능력이라는 것이다. 타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실체만이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태아는 임신 후 12~16주 사이의 어느 순간부터 운동을 시작하여 산모가 이를 느낄 수 있다. 태아가 운동(胎動) 하는 순간부터 태아는 인간이 된다는 견해이다.

다섯째, 태아가 태어나도 모태 밖에서 생존할(viability)²²⁾ 수 있는 시기를 태아가 인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기로 보는 해석이다. 태아가 인간성의 자격을 갖는 것은 태아가 모체와 분리되어서도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때라는 입장이다. 이것은 보통 임신 후 24주부터이다.

여섯째, 출생(birth)²³⁾ 하는 순간부터 태아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 논거는, 태아가 모체 안에 있는 한, 태아는 모체의 한 부분이기에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태아는 모체와 구별되는 유기체가 아니므로, 태아가 모체 안에 있는 한 이는 인간이 아니며, 태아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출생 전까지는 인간이라 볼 수 없으며, 태아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없으므로 출생 전까지는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같은 어느 시점을 구획하는 입장(drawing the line)에 대하여 자유주의적인

21) Barody, Ibid.; Mappes, op.cit. Noonan은 이 용어는 법전에서 쓰는 Latin어 animatus의 오역일 가능성일 수 있다고 본다. Noonan, op.cit., p.14.

22) Barody, Ibid., p.84; Mappes, op. cit.; Justice Harry A. Blackmun, "Majority Opinion in ROE v. WADE", Mappes and Zembaty, op. cit., p.9; Noonan, op. cit., p.13.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는 어떤 이유라도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다음의 논문들을 보라. White, op. cit., pp.10, 11; Warren, op.cit., pp.24~30; Michael Tooley, "Abortion and Infanticide." Velasques and Rostankowski, op. cit., pp. 243~249; Thompson, op.cit., pp.260~267. Thompson의 비판은 John Finnis, "The Rights and Wrongs of Abortion: A Reply to Judith Thompson", Velasquez and Rostankowski; op.cit., pp.268~273을 보라.

23) Barody, Ibid.

입장은 태아가 그 어떤 발전된 단계에서라도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⁴⁾

Jane Doe라는 가명으로 더 잘 알려진 Linda Bird Francke의 남편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그의 손톱보다도 작은 세포 덩어리 정도로 여기고 낙태를 설득했다.²⁵⁾

낙태론자들의 낙태를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낙태철학의 근거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위에서 살펴 본 대로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즉 태아는 「잠정인간」(potential living human person)²⁶⁾일지는 몰라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둘째로, 태아는 모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산모가 원하지 않으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²⁷⁾

태아존중 사상이 어느 나라보다 강했던 우리 나라도 세계적인 흐름과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가족계획사업등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낙태가 이루어 진다. 경희대 법대 李在祥 교수는 이와관련,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1백 20만~2백만명의 태아가 인공유산 되고 있는 반면 70만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⁸⁾

24) Mappes, op. cit., pp.3, 4.

25) See Linda Bird Francke, The Ambivalence of Abortion(New York : Random House, 1978), pp.3~7.

26) Sproul, op. cit., p.36. Cf. Frame, op. cit., p.38.

27) 김종배, “낙태, 그 시작과 끝”, 두란노서원, 낙태(서울 : 두란노서원, 1990), pp.24~6. Mother Teresa는 “만일 어머니가 그녀 자신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다면,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반문했다. C.Everett Koop and Francis A.Schaeffer, 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Westchester, Ill. : Crossway Books, 1983 rev. ed.), p.x.

28) 金均美 기자, 落胎罪, 서울신문(90-11-25). Cf. 낙태 제한법 통과에 美 여성계 반발, 한겨레 신문(89-7-14); 尹正國 기자, 胎兒 생명은 원초적 人權, 동아일보(88-5-12); 李基稔 기자, 종교계 「落胎 허용법」 반대 확산, 한국일보(92-8-2). 외국의 예는 See Wilkerson, op. cit., p.168; Koop and Schaeffer, op. cit., p.ix; M. Kaminski and M. Crost, The Voluntary Interruption of Pregnancy.Abstract in J-Gynecol-Obstet-Biol-Reprod-(Paris), 20(6) 1991, pp.767~73; John Jefferson Davis, Evangelical Ethics : Issues Facing the Church Today(Phillipsburg, N. 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5), p.130.

이것은 귀한 생명이 매 20초 마다 빛도 못보고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며²⁹⁾ 인구비례로 따져 볼 때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³⁰⁾

더욱 놀라운 것은 낙태를 죄악시 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 일에 적극적인 신자중 83.6%가 낙태를 경험 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³¹⁾ 낙태를 한 이유로는 「자녀 數 조절」이 48.6%, 「경제적 이유」가 14.9%, 「혼전 임신」이 10.4% 순이다.

응답자(719명)의 절반(51.9%)이 1, 2회 낙태경험이 있으며 3~5회라는 응답도 28%나 됐다. 이들 중 절대다수가 「낙태는 살인이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미혼모의 낙태는 불가피하다」(50.6%) 「원치 않던 아이를 가졌을 때는 낙태한다」(29.9%) 「인구조절을 위해 낙태는 필요하다」(49.6%)고 인식해 놀라움을 더해 준다.³²⁾

2. 낙태의 의술적 모험들

미국의 Planned Parenthood 같은 단체는 계속하여 저들의 「안전하고 합법적」(safe and legal)인 낙태를 쾌활하게 선전하는 반면,³³⁾ 전세계의 수많은 여인들은 합법적인 낙태의 결과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병발증으로 인한 「고유의 위험들」(inherent risks)로 고생하고 있다.³⁴⁾ 낙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술 된다.

29) Harold O. J. Brown, *Death Before Birth*(Nashville : Thomas Nelson, 1977).

30) Cf.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낙태 천국(임산부의 낙태율67%, 미국30%, 서독13%)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놀라운 사실은 남아선호로 인한 출생성비(남여 출산아울)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극심한 여아살해를 의미한다. 이호임, 낙태는 반인륜적 폭력, *朝鮮日報*를 읽고, *朝鮮日報*(92-8-12).

31) 동아일보(91-12-20).

32) Ibid.

33) "Celebrating Seventy Years of Service", 1986 Annual Report,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pp.3, 18, 22~23 quoted in George Grant, *Grand Illusion : The Legacy of Planned Parenthood*(Brentwood, Tenn. : Wolgemuth & Hyatt, Publishers, Inc., 1988), pp.65, 312, n.1.

34) Ibid.

(a) 월경적출법(摘出法)(Menstrual Extraction).

이 낙태방법은 보통 강간을 당한 후 곧 시술 한다. 임신이 이 이른 단계에서 확인이 될 길이 없어 월경적출법은 낙태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³⁵⁾ 미국에서 1년에 1천 5백건 시술되는 것으로 추산된다.³⁶⁾ 시술은 진공 흡출기를 자궁에 삽입하여 자궁내의 모든 것을 적출한다. 이것은 무해하고 단순한 것처럼 들리지만, 아주 심각한 병발증을 초래할 수 있다: 비뇨기 감염, 경부 외상, 패혈증, 복막염, 자궁내막염, 난관염.³⁷⁾

(b) 진공흡출에 의한 제거법(Suction-Aspiration/Suction Abortion).³⁸⁾

보통 임신한 후 10주까지의 낙태시술 2/3 이상이 이 방법으로 시행되며,³⁹⁾ 흔히 소파수술(搔爬手術)이라고 불리는 것이지만 자궁 내막을 간단히 긁어내는(소파) 것 만은 아니다. 자궁구를 임의로 다른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장시켜 자궁벽에 착상되어 있는 태반을 잘라 긁어낼 수 있도록 만든 날카로운 날이 달린 길고 움푹 파인 흡출튜브를 삽입시켜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흡출력보다 30배나 더 강한 압력을 가해 자궁내의 태아를 끄집어 내는 방법이다. 진공흡출법은 월경적출법과 같은 병발증을 공유하며, 이에 몇가지가 더해질 수 있다: 자궁열상(烈傷), 신장외상(外傷), 골반염증, 전색증(栓塞症), 혈전증(血栓症), 심지어 불임증까지도 가능하다.⁴⁰⁾

35) P. R. Saucer, Correlation Between Rates of Rape and Abortion. Abstract in Psychol-Rep, 70(3 pt.1), 1992 June, p.786, "The calculation gave an r of .21, a non-significant value."

36) J. D. Barklay, A. Forsythe, and T.L.Parker, "Abortion Methodologies: Frequency and Risk", The Medical Life-Line, March, 1986, pp.12~19; J.C.Wilke, Abortion: Questions and Answers(Cincinnati: Hayes Publishing Co., 1985), pp.83~131 quoted in Grant, op. cit.

37) Ibid.

38) Ibid.; Koop, op. cit., p.18; 김종배, op. cit., p.21.

39) Koop, op. cit.

40) S. K. Henshaw and K. O'Reilly, "Characteristics of Abortion Patients in the U.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5: 1(Jan./Feb.1985), p.5 quoted in Grant, op. cit., p.315, n.37.

(c) 확장과 소파에 의한 제거수술(Dilatation and Curettage, D & C).⁴¹⁾

임신 12~13주 전의 산모에게 행하는 시술로 썩이 모양의 아주 날카로운 칼을 자궁에 삽입하여 태반과 인간의 형체를 다 갖춘 태아의 팔과 다리를 절단하여 대야에 긁어내는 것이다. 월경적출법과 진공흡출법의 병발중에 D & C 는 자궁벽에 구멍이 남, 출혈, 골반농양(膿瘍), 생식선 감염, 내장 열상(裂傷), 혈전전생증의 위험을 수반한다.⁴²⁾

(d) 확장과 배출에 의한 제거수술(Dilatation and Evacuation, D & E).⁴³⁾

임신 3~6개월에 이르렀을때 쓰는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낙태 시술이다. 해면으로 자궁을 확장시켜 열고 집게 모양을 한 한쌍의 핀셋으로 태아의 두뇌를 깨고 등뼈를 비틀어 긁어낸다. 유연한 부분들은 뒤틀어 토막을 내어 끌어낸다. 낙태 시술자는 자궁에 남긴 부분이 없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대 위에 절단된 몸체를 맞추어 본다. 빈 자궁은 약솜으로 닦아낸다. D & E 는 D & C 의 병발증 외에도 골반염, 신장염, 경부복막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⁴⁴⁾

(e) 약물에 의한 자궁수축 유발법(Saline Amniocentesis).⁴⁵⁾

1973년 Upjohn 회사가 개발한 자궁을 수축시켜 분만을 촉진하는 Prostaglandin이란 호르몬제를 이용하여 아직 태어날 때도 되지 않은 태아를 임의적으로 분만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만으로는 태아가 살아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소나 소금물을 긴 바늘로 산모의 복부를 통하여 태아의 양막에 주사한다. 태아가 숨을 쉬며 독성의 소금물을 마신다. 하루쯤 뒤에 산모는 사산한다. 자궁파열, 폐혈전 전색증, 내출음혈, 침식성 위염, 용혈성 빈혈증, 혈구소뇨증(血球素尿症), 심한 신장장애 등의 병발증을 초래한다.⁴⁶⁾

41) 김종배, op. cit., pp, 21~22 ; Grant, op. cit., p.69.

42) Ibid.

43) Ibid., pp.69~70.

44) Ibid.

45) 김종배, op. cit., p.22 ; Grant, op. cit., pp.70~72 ; Koop and Schaeffer, op. cit., pp. 18~19.

46) Grant, op. cit.

(f) 자궁절개법(Hysterotomy Abortion).⁴⁷⁾

임신 말기에 하는 자궁절개법은 제왕절개(Caesarean section)와 꼭 같으나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제왕절개는 보통 아기의 생명을 구할 때 시술하는 것이고, 자궁절개법은 태아를 죽이려고 시술하는 것이다.⁴⁸⁾

김종배는 휴유증을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⁴⁹⁾

- a. 낙태수술을 되풀이하면 습관성인 유산이나 조산을 초래하기 쉽다. 자연유산의 경험자가 또 유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7%에 반해 낙태 경험자의 경우는 17%나 된다.
- b. 산모에게 치명적인 자궁의 임신이 낙태 후에는 그 빈도가 4배나 더 많다는 보고이다.
- c. 수술후 뒷처리가 완전치 못해 세균 감염으로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
- d. Prostagladin 낙태를 행할 경우 정맥염, 설사, 구토 및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⁵⁰⁾
- e. 이외에 하복통, 요통, 월경불순, 월경곤란 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모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낙태론자들의 주장대로 저들이 낙태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⁵¹⁾ 이의 위험성 때문에 인간의 양심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⁵²⁾

3. 낙태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Christianity Today의 편집장까지 지낸 Kenneth Ka-

47) 김종배, op. cit., pp.22~23 ; Koop and Schaeffer, op. cit., p.1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op. cit., p.79, n.30.

48) Koop and Schaeffer, op. cit., p.19, see also p.151, n.22.

49) 김종배, op. cit., p.23.

50) See Grant, op. cit., p.72.

51) Cf. Guy M. Condon, "You Say Choice, I Say Murder." Christianity Today(June 24, 1991), pp.20~23.

52) Ibid., p.74.

ntzer는 성서의 어떤 구절도 태어나기 전의 태아를 인간 혹은 완전한 인간적인 생명으로 말한 곳이 없는가 하면 낙태를 살인으로 정죄한 곳이 없다고까지 극언했다.⁵³⁾

성서가 낙태를 분명하게 직접 정죄한 곳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라치면, Harold O. J. Brown이 관찰하는 것처럼, 성서는 영아 살해도 분명하게 정죄한 곳이 없다.⁵⁴⁾

우리가 성서속의 히브리 문화와 성서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성서는 왜 낙태라는 주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성서기자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이미 생긴 아기를 지워 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염원의 추구이다. 아기를 열망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성서에는 꽤나 많이 나온다. 예컨대, 사라, 레아, 라헬, 한나 등 어머니가 되기를 열망했던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을 우리들은 성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요점은, 아기란 회피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간구하고, 소원되는 존재였다는 사실이다.⁵⁵⁾ 이와 관련하여 예일대학교 신과대학의 Leander Keck 교수는 성서 기자들은 문제가 됐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만 다루었기에, 낙태는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본다. 침묵은 태아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유대인의 생명경외 사상을 은연 중에 증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⁵⁶⁾

그렇다고해서 성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전연 잠잠하다는 말은 아니다. 성서는 인간 생명의 유일성과 고귀성을 말해준다. 성서가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하는 구절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다. 성서는 자주 태아란 낱말을 이미 태어난 어린이에 쓰는 낱말로 사용하고 있다(창25 : 22 ; 38 : 27~30 ; 욥1 : 21 ; 3 : 3, 11~19 ; 10 : 18~

53) Kenneth Kantzer, "The Origin of the Soul as Related to the Abortion Question", Walter O. Spitzer and Carlyle L. Saylor, Birth Control and the Christian (Wheaton : Tyndale Press, 1969), p.553. Cf. Nelson, op. cit., p.160 ; Michael J. Gorman, "Why is the New Testament Silent About Abortion?" Christianity Today (Jan. 11, 1993), p.27.

54) Davis, op. cit., p.148.

55) 로날드 알렌 지음/배태호 옮김, 낙태, 과연 옳은가? (서울 : 나침반사 n.d.), p.15.

56) Gorman, op. cit., p.28.

19; 31: 15; 사44: 2, 24; 49: 5; 렘 20: 14~18; 호12: 3). 이처럼 누가도 엘리사벳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아기」(brephos)라고 부르고 있다(눅1: 41, 44).⁵⁷⁾ Dallas 신학교의 Norman Geisler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은 점차 자라며 이의 가치가 점증하는 존재이다.»⁵⁸⁾ Geisler는 이와 관련하여 시편 139: 13~16을 인용한다.⁵⁹⁾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성서는 이처럼 태어나기 전의 태아와 태어난 후의 아기 사이에 뜻깊은 개인적인 연속성을 전제로 하곤 한다.

57) Ronald J. Sider, *Completely Pro-Lif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7), p.45; Wilkerson, op. cit., p.156.

58) Norman Geisler, *Ethics: Alternatives and Issues* (Grand Rapids: Zondervan, 1971), p.219.

59) Cf. Davis, op. cit., p.146; Sider, op. cit., p.45; Wilkerson, op. cit., p.169; 알렌, op. cit., pp.21~7.

주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사49:1).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못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렘1:5).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시51:5).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 주신 분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갈1:15, 16).

성서에 이와 반대되는 가르침이 있는가? 성서에는 태어나기 전의 태아가 태어난 후의 아기보다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곳이 있는가? 어떤 이들은 출애굽기 21:22~25에서 이런 암시를 찾는다.⁶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명은 명으로 갚아야 한다.

60) Cf. Sider, op. cit., p.46.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만일 태아가 죽어 낙태 되었으면 형벌은 단순한 벌금이라고 해석한다. 만일 태아의 어머니가 다치든가 죽었다면, 그 벌은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태아는 어머니보다, 태아의 죽음은 성인의 죽음보다 덜 중요시 되었다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그러므로 태아는 인간이 아니며, 낙태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⁶¹⁾

위의 구절은 단지 뜻하지 않은 살해를 말할 뿐이다. 여기서 형벌이 경감된 것은 손상된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죄를 저지른 상황에 더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⁶²⁾ 여기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뜻하지 않은 우연한 살해가 형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고의적인 살해는 더욱 더 심한 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⁶³⁾

더우기, 태아의 우연한 살해에 대한 사형 언급이 없는 것이 태아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연한 살해에 대하여 보통 사형을 명하지 않는다.⁶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찾짐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출21:12~14).

사실, 성서 그 어디에서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보다 덜 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곳은 없다.⁶⁵⁾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이 존엄한 만큼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 또한 존엄한 것이다. 성서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하나님 창조에 뿌리하며 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조심스럽게 창조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 존엄의 근거의 틀을 마련해 준다.

61) Ibid.

62) 알렌, op. cit., p.19.

63) Sider. op. cit. pp.46~47.

64) Ibid.

65) Ibid ; Wilkerson, op. cit., p.170.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창1: 26, 27).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을 모든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다. 하나님 형상의 인침과 하나님 닮음이 하나님과 인간을 유일하게 관련 짓는 것이다.⁶⁶⁾ 그러므로 누구라도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은 똑같은 생물학적인 종의 일원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를 살해하게 되는 것이다.⁶⁷⁾

이러한 정신을 이어 받은 초대교회는, Michael J. Gorman에 따르면, 예수로부터 콘스탄틴에 이르기까지 초기 기독교의 윤리는 철저한 생명우선의 윤리(consistent pro-life ethic)로서 기술될 수 있다. 그는 말한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여자, 어린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내의 아이들을 옹호했다. 이 생명 우선의 윤리는 사랑을 찬성하여 미움을,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정의를 위하여 압제를, 생명을 위하여 유혈을 버렸다. 기독교인들의 낙태에 대한 반응은 이 철저한 생명 우선의 윤리의 중요한 견지였다.»⁶⁸⁾ 이같은 사상은 교부들의 문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Augustine은 태아들의 부활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⁶⁹⁾

66) Sproul, op. cit., p.30. Cf. Koop and Schaeffer, op. cit., pp.78~113.

67) Ibid., p.113.

68) Michael J. Gorman, *Abortion and the Early Church* (Downers Grove : InterVarsity, 1982), p.90.

69) Saint Augustine, *The City of God*, BK XXII, Ch.13, “Whether abortions should not share in the resurrection, since they belong to the number of the dead.” Edd., Hermigild Dressler,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24, *Writings of Saint Augustine*, Vol. 8, trans. Gerald G. Walsh and Daniel J. Honan, *The City of God*, BKS XVII-XXII (Washington, D.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4), p.460.

우리들의 부활 신앙에 대한 논적들의 반대 의견들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 생명을 가졌다가 죽은 낙태아들에 대하여, 나는 낙태아들이 부활하리라는 것을 감히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못하겠다. 나는 다만 낙태아들이 죽은자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죽은자의 부활이 낙태아들에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되는가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 할 수 있을 뿐이다. 죽은 사람이 모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고 비록 저들이 한때 어머니의 태안에서 인간의 육체를 가졌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육체없는 인간 영혼들이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어디서 살다가 죽었든지 모든 인간 영혼들은 부활할 때, 저들이 가졌던 육체들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도, 나는 태 안에서 죽은 어떤 산 인간의 태아도 부활을 공유할 수 없다고 부인할 수 있을런지 알 수 없다. 이 두가지 가능성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든 간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태어나자 마자 죽은 어린이들이 부활에 동참한다고 가정할 때, 죽은 어린이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낙태아들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Tertullian도 Augustine과 같은 입장이다.⁷⁰⁾

그러나 우리들에게 살인은 절대적으로 금해졌다. 우리들에게 인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로부터 피를 흘리는 한, 심지어 태안에 태아도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린이가 태어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살인의 속(速)한 방법이다. 이미 태어난 어린 아기를 죽이는 것이나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성장한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씨 안에 온전한 과일의 모습이 벌써 들어났기 때문이다.

70) Tertullian, tran. Sister Emily Joseph Daly, Apology, ch. 9. 8. Edd., Roy Joseph De-ferrari,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10, Tertullian, Apologetical Works and Minucius Felix, Octavius (Washington, D. 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0), pp.31,2.

그는 계속하여 말한다.⁷¹⁾

그러므로 태아는 잉태가 완성되는 순간에 인간이 된다.

종교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개신교 역시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임신의 어떤 단계에서도 낙태를 강하게 반대하여 오고 있다.⁷²⁾

III. 結 論

황필호는 낙태에 나타난 생명 경시 풍조, 성윤리의 부재, 물질 만능주의, 또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키는 구조적 모순은 세계공통의 현상이라고 한탄한다.⁷³⁾ 이

71) Tertullian, tran. Edwin A. Quain, *On the Soul*, ch.37,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body and soul", *Ibid.*, p.266. 약이나 시술로 낙태하는 것을 사탄의 일로 정죄하는 교부들의 글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Minucius Felix, tran. Rudolph Arbesmann, *Octavius*, ch. 30. 2. *Ibid.*, p.385; Clement of Alexandria, tran. Simon P. Wood, *Christ the Educator*, ch. 10. 96. Edd., Roy Joseph Deferrari,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4), Vol. 23, pp.173,4; Saint Caesarius of Arles, tran. Sister Mary Magdeleine Mueller, *Sermons*(Vol. I.1~80), 1.12. Edd., Roy Joreph Deferrari,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6), Vol. 31, p.13; 19.5(p.102); 44.2(pp.221,2), 51.4(pp.258~9); 52.4(p.261), 51.4(pp.258,9); 52.4(p.261), 52.5(p.262); *Sermons*(Vol. II.81~186), Edd., Hermigild Dressler,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64), vol. 47, 154.4(p.343); *Sermons*(Vol. III.187~238), Edd., Bernard M. Peebles,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in association with Consortium Press, 1973), Vol.66,200.4(p.61), 200.5(p.62)

72) "The major Reformers, then, were rigorously opposed to abortion at any stage of pregnancy." See Nelson, *op. cit.*, ch.10, "Protestant Attitudes Toward Abortion", pp.156~166, esp. p.157.

73) 황필호, *op. cit.*, p.5.

러한 상황에서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주장과 「낙태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행위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생명우선론자(pro-life)와 선택우선론자(pro-choice)가 대진하고 싸운다.

낙태 찬성론자/선택 우선론자들도 태아를 해치거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하지 않는다.⁷⁴⁾ 미 낙태 찬성 운동 연맹(The National Abortion Rights Action League) 사무국장 케이트 마이클먼도 「낙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다. 임신부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낙태한다」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다.⁷⁵⁾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를 필요악(a necessary evil)으로 본다.⁷⁶⁾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성서는 인간 생명의 유일성과 고귀성을 말해준다. 태어나기 전에 태아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태어난 후 죽을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 잉태된 순간부터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단계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연속성을 갖기 때문이다.⁷⁷⁾ 태아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잠정 인간」이기 때문에 태아의 죽음에다 출생과 사망때처럼 출생-사망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⁷⁸⁾ 장례식 또는 애곡 같은 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낙태를 한다는 것은 사마귀를 제거하는 것 혹은 당신의 손톱을 자르거나 당신의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지 않다. 누구라도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거나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낙태를 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 한부분이 죽어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⁷⁹⁾ 그래서 Koop와 Schaeffer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낙태에 반대하는 소리를 크게 내 주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만 치부해 버려서는 안된다고 강

74) 알렌, op. cit., p.7.

75) 鄭鳳煥기자, 다시 불붙은 美落胎 논쟁, 중앙일보(89-7-11).

76) 켈라한, op. cit., p.246.

77) 김종배, op. cit., pp.19,20.

78) Cf. Koop and Schaeffer, op. cit.,p.22.

79) Anonymous, "An Apology to a Little Boy I Won't Ever See", Providence Evening Bulletin(80-4-23) quoted in Sider, op. cit., p.40 ; Cf. Koop and Schaeffer, op. cit., p.69 ; Frame, op. cit, p.38.

변한다. 이것은 인류의 문제이다.⁸⁰⁾ 태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니기에 합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도덕적 암흑기인 고대 그레코 로마시대에 기독교는 생명 경외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낙태를 죄악시 하는 기틀을 세웠다. 어쩌면 그레코 로마시대 보다 더 암울한 도덕 부재의 시대인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생명 존엄의 비전을 다시 제시하고 또 다른 전쟁⁸¹⁾을 치를 각오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기독교가 교육을 통해서 이룩할 과업이다.⁸²⁾ 기독교인들부터 우선 철저한 생명우선론자가 되게 교육하고, 저들이 철저한 생명우선론의 전도자가 되게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상가들의 하나같은 주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생명 경외의 차원에서 낙태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독일의 한 법원은 임신 처음 석달(the first trimester)에 어떤 이유에서나 낙태가 합법이 될 수 있다면 두번째 석달(second-trimester), 세번째 석달(third-trimester)에 낙태를 만류하기 힘들다고 논했다.⁸³⁾

「오래동안 나는 낙태 전쟁은 최고사법 재판소(the Supreme Court)나 의회(Congress)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써 왔다.」고 Prison Fellowship 창시자 Chuck Colson은 말한다. 그는 계속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과 신성함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줄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⁸⁴⁾ 교육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

미 전국에서 「Life Activist Seminars」를 주도하고 있는 Mark Clutcher는 「나는 항상 생명우선론 운동의 근본적인 약점은 훈련의 결여라는 것을 관찰해 왔다... 저

80) Koop and Schaeffer, op. cit., pp.27,28. Cf. p.50.

81) See Tim Stafford, "The Abortion Wars : What most Christians don't know", Christianity Today(Oct. 6,1989), pp.16~20. Cf. Paul Brenton, "Casualties of the Abortion Wars", Christianity Today(Oct. 26, 1992), pp.22~24.

82) Pro-lifer 들이 교육해야 할 내용은, See Condon, op. cit., pp.22,23.

83) Koop and Schaeffer, op. cit., p.15.

84) Kim A. Lawton, "20 Years After Roe...", Christianity Today(Jan. 11, 1993), p.38.

들의 생명우선의 확신을 어떻게 갖추고 나가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⁸⁵⁾ 철저한 생명우선론자, 철저한 생명우선론의 전도자를 만드는 교육이 요청된다.

맺는 말로 Texas 대학교의 Marvin Olasky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 :⁸⁶⁾ 「당신은 태아에 대하여 말할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한낱 조직 덩어리라고 말합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낙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될 것이다. 생명은 귀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參 考 文 獻

- 김종배, “낙태, 그 시작과 끝”, 두란노 서원, 낙태(서울: 두란노 서원, 1990).
- 맹용길, “성경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 두란노 서원, 낙태(서울: 두란노 서원, 1990).
- 알렌, 로날드, 배태호 옮김, 낙태, 과연 옳은가? (서울: 나침반사, n. d.).
- 캘라한, 다니엘, “낙태 논쟁은 향상될 수 있는가”, 황필호 편저,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서울: 종로서적, 1990), pp.232~250.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황필호 편저,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 해방 (서울: 종로서적, 1990).
- Augustine, Saint, The City of God. Edd., Hermigild Dressler,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24. Writings of Saint Augustine, Vol. 8. trans. Gerald G. Walsh and Daniel J. Honan, The City of God, BKS XVII-XXII](Washington, D. 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4).
- Barklay, J. D., A. Forsythe, and T. L. Parker, “Abortion Methodologies: Frequency and Risk”, The Medical Life-Line(Mar. 1986), pp.12~19.

85) Ibid.

86) Frame, op. cit., p.38.

- Barody, Baruch, *Abortion and the Sanctity of Human Life : A Philosophical View* (Cambridge : MIT Press, 1975).
- Barth, Karl, *Church Dogmatics*(Edinburgh : T. & T. Clark, 1961), Vol.III.
- Beckwith, Francis J. "Abortion", ed., R. K. Harrison, *Encyclopedia of Biblical & Christian Ethics*(Nashville : Thomas Nelson Publishers, 1992).
- Blackmun, Justice Harry A. "Majority Opinion in ROE v.WADE", Thomas A. Mappes and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 Morality and Social Policy* (San Francisco : McGraw-Hill Book Company, 1982²).
- Brenton, Paul, "Casualties of the Abortion Wars", *Christianity Today*(Oct. 26, 1992).
- Brown, Harold O. J. *Death Before Birth*(Nashville : Thomas Nelson, 1977).
- Caesarius of Arles, Saint. Tran. Sister Mary Magdelein Mueller, *Sermons*(Vol.I.1~80). Edd., Roy Joseph Deferrari, et al. *The Father of the Church*(Washington, D.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6),Vol. 31.
- Sermons*(Vol.II. 81~186). Edd., Hermigild Dressler,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Washington, D. 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64), Vol. 47.
- Sermons*(Vol.III. 187~238). Edd. Bernard M. Peebles,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Washington, D. 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in association with Consortium Press, 1973), Vol. 66.
- Clement of Alexandria. Tran. Simon P. Wood, *Christ the Educator*. Edd., Roy Joseph Deferrari,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Washington, D. 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1954), Vol. 23.
- Condon, Guy M. "You Say Choice, I Say Murder", *Christianity Today*(June 24, 1991).
- Davis, John Jefferson. *Evangelical Ethics : Issues Facing the Church Today*(Phillipsberg, N. 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5).
- English, Jane. "Abortion and the Concept of a Person", Thomas A. Mappes and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 Morality and Social Policy*(San Francisco : McGraw-Hill, 1982²).
- Felix, Minucius, Tran. Rudolph Arbesmann, Octavius. Edd., Roy Joseph Deferrari,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Washington, D.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0).
- Gardner, R.F.R., *Abortion : The Personal Dilemma*(New York : Pyramid Books, 1974).
- Geisler, Norman. *Ethics : Alternatives and Issues*(Grand Rapids : Zondervan, 1971).
- Gorman, Michael J., *Abortion and the Early Church*(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1982).
- “Why Is the New Testament Silent About Abortion”, *Christianity Today* (Jan. 11, 1993).
- Grant, George, *Grand Illusion : The Legacy of Planned Parenthood*(Brentwood, Tenn. : Wolgemuth and Hyatt, Publishers, Inc., 1988).
- Grisez, Germain, *Abortion : The Myths, The Realities, and the Arguments*(New York : Corpus Books, 1970)
- Hare, R.M., “Abortion and the Golden Rule”, Manuel Velasquez and Cynthia Rostankowski, *Ethics : Theory and Practice*(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85).
- Henshaw, S.K. and K.O'Reilly “Characteristics of Abortion Patients in the U.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5 : 1(Jan./Feb. 1985).
- Kaminski, M. and M. Crost, *The Voluntary Interruption of Pregnancy*. Abstract in *J-Gynecol-Obstet-Biol-Reprod-(Paris)*, 20(6), 1991, pp.767~73.
- Kantzer, Kenneth, “The Origin of the Soul as Related to the Abortion Question”, Walter O. Spitzer and Carlyle L. Saylor, *Birth Control and the Christian* (Wheaton : Tyndale Press, 1969).
- Koop, C. Everett and Francis A. Schaeffer. *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 (Westchester, Ill. : Crossway Books, 1983 rev. ed.).

- Kreeft, Peter, *Unaborted Socrates*(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1983).
- Kwast, B. E., *Abortion : Its Contribution to Maternal Mortality*. Abstract in *Midwifery*, 8(1), 1992 March, pp.8~11.
- Lawton, Kim A., "20 Years After Roe...", *Christianity Today*(Jan. 11, 1993).
- Mappes, Thomas A. and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 Morality and Social Policy* (San Francisco : McGraw-Hill Book Company, 1982²).
- McLennan, Charles E. and Eugene C. Sandberg. *Synopsis of Obsterics*(Saint Louis : C. B. Mosby, 1974⁹).
- Nelson, James B., *Between Two Gardens : Reflections on Sexuality and Religious Experience*(New York : The Pilgrim Press, 1983).
- Noonan, Jr., John T., "An Almost Absolute Value in History", Thomas A. Mappes and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 Morality and Social Policy*(San Francisco : McGraw-Hill, 1982²).
- Saucer, R. R., *Correlation Between Rates of Rape and Abortion*. Abstract in *Psychol-Rep*, 70(3), 1992, June.
- Sider, Ronald J., *Completely Pro-Life*(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1987).
- Sproul, R.C., *Abortion : A Rational Look At An Emotional Issue*(Colorado Springs : NAV Press, 1990).
- Stafford, Tim, "The Abortion Wars : What most Christians don't know", *Christianity Today*(Oct. 6, 1989).
- Tertullian, Tran. Sister Emily Joseph Daly, *Apology*. Edd., Roy Joseph Deferrari, et al.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10, Tertullian, Apologetical Works and Minicius Felix, Octavius*(Washington, D.C.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0). Tran. Edwin A. Quain, *On the Soul*, Ibid.
- Thompson, Judith Jarvis, "A Defense of Abortion", Manuel Velasquez and Cynthia Rostankowski, *Ethics : Theory and Practice*(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85).
- Tooley, Michael. "Abortion and Infanticide", Manuel Velasquez and Cynthia Ro

- stankowski, Ethics : Theory and Practice(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85).
- Velasquez, Manuel and Cynthia Rostankowski. Ethics : Theory and Practice(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85).
- Warren, Mary Anne. "On the Moral and Legal Status of Abortion", Thomas A. Mappes and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 Morality and Social Policy(San Francisco : McGraw-Hill, 1982²).
- Werner, Richard. "Abortion : The Moral Status of the Unborn", Manuel Velasquez and Cynthia Rostankowski, Ethics : Theory and Practice(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85).
- White, Justice Byron R., "Dissenting Opinion in ROE v. WADE", Thomas A. Mappes and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 Morality and Social Policy(San Francisco : McGraw-Hill, 1982²).
- Wilke, J. C., Abortion : Questions and Answers(Cincinnati : Hayes Publishing Co., 1985).
- Wilkerson, Rich, Straight Answers to Tough Questions About Sex(Pittsburgh : Whitaker House, 1987).

여 백